

“유심 교체해드려요”… 해킹사태 악용 피싱 기승

기기 보안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원격제어 등 앱 4종 설치 유도
SKT, 12일까지 유심포맷 적용

SK텔레콤의 중앙 서버 해킹사태 이후 유심(USIM) 교체 등을 빌미로 한 피싱문자 등이 쏟아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SK텔레콤은 해킹사태 20여 일만에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100%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SK텔레콤 해킹사태 관련 보이 스피싱 앱은 4종 이상이며 수법 또한 수습가지에 이른다.

보안업계는 SK텔레콤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URL(bit.ly 등) 접속을 피하고, ‘직접 방문해 보안을 점검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빚어진 혼란을 이용한 악성 앱(APP) 보이 스피싱 공격이 실제로 시도된 현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킹 사고는 지난 4월 19일, 가입자 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



SK텔레콤 유심 교체 수요와 해킹 불안을 노린 보이 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자의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 번호), 유심 인증기 등 총 25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발생했다.

해킹소식이 알려진 후 유출 내용을 토대로 유심복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정보 및 자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4월 28일부터 유심 교체에 나섰다. 그러나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선 대리점에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공급된 유심의 수는 소형 대리점의 경우 100~200개, 대형 대리점의 경우 200~1000개 전후였

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유심 교체 예약 웹 페이지를 운영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한 악성 앱 보이 스피싱이 기승을 부린 시기는 5월 초 전후다.

피싱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에버스핀에 따르면 해킹 사고 이후 등장한 악성앱 피싱 시나리오는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계산해 설계된 공격 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SKT 유심 해킹 피해 여부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기기가 해킹된 것 같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사

용자의 기기 보안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에버스핀이 확보한 실제 설치 기록에 따르면, 해당 앱 4종(AnyDesk, 알집, 피해구제국, SK월더스)은 4월 20일 단 10분 이내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공격의 자동화와 속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피싱범죄 조직의 준비된 시나리오와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해당 악성앱들에 대한 정보를 KISA에 신속히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혼란 속에서 피싱범죄는 항상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시스템 기반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고와 해킹사태로 인한 다양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SK텔레콤은 12일까지 유심포맷(소프트웨어 개선편 방식의 유심 초기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심 물량이 대량 입고되기 전 빠르게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이심(eSIM) 교체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심 불법복제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커머스가 AI 가격 협상 솔루션인 ‘네고 위즈’를 자사 통합구매대행 서비스에 도입했다. /KT

KT커머스 AI 가격협상 솔루션 구매대행 서비스 도입

KT커머스는 자사의 방대한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의 가격 협상 솔루션 ‘네고 위즈(Nego-Wiz)’를 자사 통합구매대행 서비스에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네고 위즈 솔루션은 AI를 기반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가격 협상 과정을 자동화한다.

AI가 해당 상품의 경쟁도, 과거 거래 정보, 구매 규모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협상 전략과 목표 가격을 도출하고, 대화형 챗봇이 상대와 협상을 진행한다.

KT커머스는 향후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상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전략을 개선해 네고 위즈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1분기 기업 실적

카카오, 매출 1.8兆… 6% 줄어

플랫폼·커머스·기타 매출은↑
슈퍼앱 위한 ‘발견영역’ 도입
AI 카나나, 순차적 공개 예정

카카오는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1조 8637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은 4% 증가한 9930억원이다. 톱비즈 매출은 7% 늘어난 5533억원이며, 이 중 광고 매출은 3% 증가한 2861억원이다. 비즈니스 메시지는 11% 성장했고, ‘브랜드 메시지’ 상품은 5월 출시 예정이다.

커머스 매출은 12% 증가한 2672억원으로, 선물하기와 톱딜 거래액은 각각 4%, 5% 늘었고, 전체 통합 거래액은 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빌리티·페이 등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은 3% 증가한 3656억원이다. 주차·퀵서비스의 성장이 이어졌고, 페이는 전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

률을 보였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16% 감소한 8707억원을 기록했다.

뮤직 매출은 6% 감소한 4379억원, 스토리는 6% 감소한 2126억원, 미디어는 21% 줄어든 75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비용은 1조 7583억원으로 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 줄어든 1054억원, 영업이익률은 5.7%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슈퍼앱’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하반기 ‘발견 영역’을 도입해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AI 부문에서는 ‘카나나’에 대한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시작으로, 쇼핑·로컬 중심의 버티컬 AI, 생성형 검색,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신아 대표는 “AI가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LG U+, 가입자·B2B 확대에 성장세

영업·서비스수익, 영업이익 늘어
비효율 사업 정리로 비용 효율화

LG유플러스가 2025년 1분기에도 유·무선가입자 증가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확장에 힘입어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2025년 1분기 K-IFRS 연결 기준으로 영업수익 3조 7481억원, 서비스수익 2조 9389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1.6%, 15.6% 증가한 수치다. 성장배경에는 유·무선가입자 증가, AI 기반 B2B 인프라 사업 확대, 비효율 사업 정리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있었다.

광고선전비 증가로 마케팅비는 1.6% 늘어난 5558억원이며, 설비투자(CAPEX)는 13.4% 줄어든 3331억원이다.

무선 부문에서는 수익이 2.0% 증가한 1조 6121억원, 서비스수익은

2.4% 증가한 1조 5428억원이다.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2907만 5000개로 10.7% 증가하며 1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MNO(이동통신 부문) 가입은 2051만 3000개, MVNO(알뜰폰 부문) 가입은 856만 2000개를 기록했다. 특히 5G 핸드셋 가입자는 819만 6000개로 14.0% 늘었고, 해지율은 1.09%로 개선됐다.

스마트홈 부문 매출은 2.4% 증가한 6306억원이다. 초고속 인터넷 수익은 6.9% 상승한 2965억원, 가입회선은 539만 6000개로 3.4% 증가했다. IPTV는 가입회선이 561만 1000개로 2.4% 늘었지만, 수익은 1.2% 감소한 3301억원이다.

기업인프라 부문은 2.1% 증가한 4097억원을 기록했다. IDC 수익은 873억원(2.1% 증가), 솔루션 사업은 1189억원(0.4% 증가), 기업회선 수익은 2035억원(3.1% 증가)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부산도시철도 운행정보 지도서 실시간 제공

네이버가 7일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의 실시간 도착과 열차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전철 실시간 도착 및 위치 정보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에 한해 제공했다.

사용자는 열차가 시간표와 다르게 운행되는 경우에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부산도시철도의 실시간 열차 위치와 다음 열차 도착 시간 등 운행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열차 증편, 지연, 운행 시간 연장 등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도 실시간으로 안내되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이동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라바웨이브-법무법인 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몸캠피싱 대처법 게시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법무법인 이유와 협력해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대처법을 담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몸캠피싱 범죄의 정의부터 가해자 처벌 범위, 협박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해킹 앱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폭넓게 다룬다. 피해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영상 삭제와 유포 방지의 차이점, 허위·사기업체를 피하는 방법 등 실효적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김현정 기자

메타빌드, ‘라몬’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시장공략

NIA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출시 앞뒤

인공지능(AI)·연계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메타빌드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라몬(LLaMON)’의 검색증강생성 및 대화형 코드 생성, 에이전트 등의 기술을 공공·의료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 AI 특화 서비스 시

장 공략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메타빌드가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해온 국가 지식정보통합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서비스’에는 105개 기관의 지식 정보 2억 4000만 건이 탑재됐다. 대화형 채팅과 맞춤형 검색, 문서 요약 및 질의응답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언어모델과 검색증

강생성 기술을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NIA)은 메타빌드와 손잡고 질의응답을 통한 노코드 기반 연계서비스 개발 및 이상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AI 연계 어시스턴트’ 기술을 실증 중이다. 메타빌드는 A I 연계 어시스턴트가 정부 2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등 국가 주요 데이터·서비스 연계 플랫폼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메타빌드와 협력해 건축허가, 경제, 교통을 포함, 18개 분야·236종의 민원업무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사 솔루션을 적용해 행정 업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메타빌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